



특 집 양돈산업의 현황과 향후 변화전망

문제되는 주요 질병의 현재와 미래



정 현 규 상무
도드람양돈농협

양돈산업의 현황과 향후 변화전망

양 돈산업에서 주요 질병의 피해가 총생산액의 20%까지 이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자료로부터의 내용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매년 수천억원이 돼지가 폐사하거나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해서 부담하는 비용일 것이다.

지난 겨울만 하더라도 PED를 비롯한 설사병으로 얼마나 많은 농장들이 고생을 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5년후 예도 이런 피해와 고민이 계속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분명하다.

1. 현재 문제되는 질병들

가. 문제 질병들

앞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PED를 비롯한 설사병이 당장 겨울철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이고,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 세균성 호흡기 질병들이다.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에는 가장 문제성이 있는 질병으로는 서코바이러스에 의한 PMWS로 알려져 있다. PRRS도 1990년대 후반부터 피해가 큰 질병으로 대두되기 시작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위와 같이 눈에 띄게 보이는 질병 이외에도 만성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마이코플라스마페렴, 개선충, 대장균성설사 등이 어찌면 양돈산업에



는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들 질병은 당장의 폐사보다는 사료효율의 저하, 성장률의 둔화, 위축 등 당장의 피해라고 보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질병들 이외에는 또 무슨 질병들이 있을까? 최근에 농장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돼지인플루엔자, 글래서씨병이 발생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번식과 관련된 질병은 어떨까?

지난 해부터 임신돈에서 유산, 사산이 증가하면서 검사한 결과를 보면 EMC, 파보바이러스감염증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PRRS도 임신후반기의 유사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번에 돈콜레라백신 접종돈에서 번식문제가 발생

했을 때도 EMC, 파보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공식기관에서 발표한 바 있다.

어쨌든 최근 번식에서 발생된 문제샘플 검사결과를 보면 뇌심근염(EMC)이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이 질병이 예전에 비해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나. 현재 사용중인 대책들

돼지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농장에서 제일 흔히 하고 있고 쉬운 대책은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사료, 물에 혼합하거나 주사하거나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예전에 비해서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항생제를 오랜기간 사용해 온 결과이기도 하고, 정확한 진단이나 검사없이 일단 약부터 사용하는

농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효과적인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농장들이 체계적인 대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면 돼지가 죽은 경우에 수의사를 부르지 않거나, 원인을 조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상황이 한참 지나서야 수의사를 부르니 해결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장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또 무엇이 문제일까를 생각해 본다. 필자의 의견은 농장과 쉽게 접근 가능한 전문수의사와 진단이 가능한 기관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양돈장의 질병피해를 증가시키고, 농장 관계자들이 고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일본의 양돈전문 수의사들은 향후에 일본에서 제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PRRS, PMWS, 마이코플라스마페렴, 홍막페렴, 파보바이러스, 오제스키병 등을 꼽고 있다. 우리도 이런 정도의 질병들이 지금이나 가까운 장래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돼지인플루엔자, 살모넬라, 회장염, 글래서씨병도 지속적인 피해질병이 될 것이다. PED도 당연히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 질병은 예방이 더 중요하고, 신발을 두 번 이상 갈아신여야 돈사에 갈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방역 위생관리예 예외를 두어서 안된다.

2. 앞으로 5년 후는?

가. 문제 질병의 변화

일본의 양돈전문 수의사들은 향후에 일본에서 제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PRRS, PMWS, 마이코플라스마폐렴, 홍막폐렴, 파보바이러스, 오제스키병 등을 꼽고 있다.

우리가 이런 정도의 질병들이 지금이나 가까운 장래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돼지인플루엔자, 살모넬라, 회장염, 글래서씨병도 지속적인 피해질병이 될 것이다. PED도 당연히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PRRS, PMWS를

보면 5~10년 정도의 기간마다 새롭게 문제되는 질병이 나타나는 가능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5년 후에는 무슨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

다. 고민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

번식기 질병도 계절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EMC는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 대책들은?

바람직한 대책수립을 위한 농장 및 업계의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업계의 질병관련 업무의 체계화

농장에서 문제가 되는 질병과 대책을 현장 사람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전문가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당장 돼지가 죽어가는데도

마땅하게 검사를 보낼 곳도 없고, 농장으로 부를 전문가가 가까이 없다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이용이 어려운 곳에 있는 전문가나 기관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 단위마다 1개 정도의 전문 진단 기관과 현장전문 수의사가 2~3명이 있어야 한다.

2) 기본 관리의 철저

농장의 질병은 환경불량, 스트레스가 촉발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두, 밀집사육이 심화될수록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어 질병피해는 커진다. 이런 면에서 적절한 사육두수를 지키고 기본관리에 충실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가장 좋은 질병피해 감소대책이 될 것이다.

3) 올인올아웃 돈사의 운영

새로운 질병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수년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문제되는 질병들의 대책도 완전하지 못하다. 100% 효과있는 백신이나 완전한 치료약도 없다. 결국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결의 기초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올인올아웃 시



농장에서 문제되는 질병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현장 사람들이 가까워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농장에서는 적절한 사육두수를 지키고 기본관리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질병피해 감소대책이 될 것이다.

또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올인올아웃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한편, 예방이 더 중요하고 방역 위생관리에 예외를 두어서 안된다. 질병은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록해야 한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돈사 형태가 갖춰져야 한다.

4) 농가간, 양돈조직간의 협력

PED의 예에서 잘 보듯이 돼지질병은 한 농장에서만 발생되어 피해를 입히지 않고 주변에 쉽게 전파되어 지역적, 국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같은 지역의 농가가 서로의 정보와 대책을 공유해야 한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옆 농장으로 퍼질 수 있는 질병들이 너무 많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의 대책을 위해서는 지역간의 조직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지, 질병만은 하나로 가든지 해야 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농장주인이 다

르다고 구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5) 의식의 개선

예방이 더 중요하고, 신발을 두 번 이상 갈아신어야 돈사에 갈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방역 위생관리에 예외를 두어서 안된다. 한번 정했으면 지키는 원칙이 있어야 질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가는 무료로 검사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도 버렸으면 좋겠다. 제대로 돈을 지불하여 검사하고, 서비스를 받으려는 노력이 발전의 원동력이다.

질병은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록해야 하고,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피해감소의 최선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6) 현장중심의 한 곳 연구소로 기술을 모아야

현장에서 직접 이용이 가능한 기술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곳이 한 군데로 모여서 있으면 좋겠고, 양돈농가의 손으로 만들어지면 더욱 좋겠다. 그리고, 이 곳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이 바로바로 농가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당장, PMWS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도 통일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PED가 발생한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제각각 제시하는 것이 다르다. 농장은 실험실이 아니다.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해보는 곳이 아니다. **양돈**

